

-아라/어라

해라체 명령

-(느)ㄴ다에 대응하는 명령형입니다. 직접적이고 완곡함이 없으며, 철저히 아랫사람에게 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코치가 선수에게, 또는 특정 대상이 없는 구호에 씁니다.

■ 결합 방법

어간 종류	형태	예
마지막 모음 ㅏ 또는 ㅑ	-아라	앉다 → 앉아라
그 밖의 모음	-어라	먹다 → 먹어라
하다 동사	해라	공부해라
축약	-아요/어요와 같음	가다 → 가라
부정	-지 마라	가지 마라
문어 지시문	-(으)라	알맞은 것을 고르라

■ 언제 쓰나요

모음 선택은 -아요/어요규칙을 따릅니다: 먹어라, 앉아라, 해라. 하다는 해라가 되고, 가다는 축약되어 가라가 됩니다.

높임이 전혀 없는 진화 명령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손위 형제가 동생에게 씁니다. 윗사람에게 쓰면 단순히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불쾌하게 들립니다.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도 나타납니다: 시험 지시문(알맞은 것을 고르라), 구호, 제목 등입니다. 글로 쓴 지시문에서는 -아라/어라보다 줄인 형태 -(으)라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친구 사이에서 보통 쓰는 명령형은 그냥 -아/어입니다. 먹어라보다 먹어가 일반적이며, 먹어라는 더 단호하게 들립니다. 부정형은 -지 마라.

■ 예문

- 1 밥 먹어라.
- 2 여기 좀 앉아라.
- 3 숙제부터 해라.
- 4 늦었으니까 빨리 가라.
- 5 걱정하지 마라. 다 잘될 거야.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 비교

-(으)세요

-(으)세요는 공손한 요청이고, -아라/어라는 꾸밈없는 명령입니다. 쓸 수 있는 상대가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 여기 앉아라. (앉아)

-아/어

친구 사이에서는 반말 형태만으로도 명령이 되며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 -아라는 힘을 더합니다.

빨리 먹어. (어서 먹어) / 빨리 먹어라. (먹으라니까)

-(으)라

글로 쓴 지시문, 그리고 특히 다음에 쓰이는 줄인 형태입니다: 간접 명령 (인용): -(으)라고 하다.

고르라. (시험 지시문) /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말했다)

■ 주의

✗ 숙제부터 하어라.

○ 숙제부터 해라.

하다는 어디에서나 그렇듯 이 어미 앞에서 해가 됩니다: 공부해라, 운동해라, 전화해라.

✗ 선생님, 여기 앉아라.

○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이 형태는 아랫사람에게만 씁니다. 윗사람에게 쓰면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모욕이 됩니다.

✗ 걱정하지 않아라.

○ 걱정하지 마라.

금지는 높임 정도와 관계없이 말다로 만듭니다. 앉다로는 명령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